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8일(수)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담 당 자 • 식량축산담당 이병수 ☎440-6921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이겨낸 인천 벼! 최고품질 쌀 생산”

- 벼 생육현황 및 후기관리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인천지역 벼 수확량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31도를 넘는 날이 계속돼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비료를 더 공급해야하는 악조건이었지만, 장마와 태풍피해가 없어 벼 수확의 증수가 기대된다.

다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하거나 초기 방제를 하지 못한 논에선 이삭도열병과 이삭누룩병 발생이 우려돼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주요 병해 발견 시 조기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잦은 강우로 인해 수발아가 우려되는 조생종 벼는 조기 수확하고 중만생종 벼는 뿌리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물을 걸러대거나 논물을 최대한 얇게 대야 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예방적 방제를 하지 못한 농가에선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병 발견 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약제를 사용 시기에 맞게 방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불임> 관련 사진

